음주운전 물의 강정호, WBC 대표팀 제외

오승환, 결정 보류… 김현수 · 추신수, "구단 통보 오는대로 다시 논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1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지 못한다.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은 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마친 뒤 "강정호를 대표팀 엔트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결국 대표팀 코칭스태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의 WBC 대표팀 엔트리 제외는 예상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탓이다.

강정호는 지난달 2일 새벽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고,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이날 강정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정호 대신 WBC 50명 예비명단에 포함됐던 넥센 히어로즈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22)이 최종 2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이 28명 명단에 들면서 생긴 50명 예비명단 한 자리에는 오지환(27 · LG 트윈스)이 들어간다.

기술위원회는 왼 팔꿈치 수술을 받은 김광현(29 · SK 와이번스)도 일단 28인 엔트리에서 빼기로 했다.

김광현은 이날 일본으로 출국해 5일 팔꿈치 수술을 받아 올해 정규리그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광현의 대체자와 도박 파문 탓에 대표팀 합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오승환(35 ·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합류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좌완 선발 요원인 양현종(29 · KIA 타이거즈)의 상태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김 감독은 "오승환은 확실히 필요한 선수"라고 단언하면서도 "하지만 선발을 뽑아야 할지, 마무리 투수를 추가로 뽑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광현 대신 선발투수를 합류시킬지,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을 포함할 지를 두고 논의를 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현종의 상태를 지켜봐야 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양현종이 현재 재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봄에는 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현종의 대표팀 합류가 불발되면 다른 선발투수 자원을 대표팀으로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양현종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면 오승환의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는 질문에 김 감독은 "양현종의 대표팀 합류가 확정돼도 오승환의 발탁 여부는 또다시 회의를 해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기술위원회는 오승환을 50명 예비명단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김 감독은 "오승환의 합류 여부는 하루빨리 결정을 해줘야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통해 구단에 통보를 해야하고, 구단의 반응과 본인의 반응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일단 오승환이 에이전시를 통해 대표팀으로 발탁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32 · 롯데 자이언츠)는 무릎 부상 탓에 명단에서 빠졌다. 강민호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 대표팀 합류가 힘들다는 뜻을 전해왔다. 강민호가 빠진 28명 최종 엔트리 명단에는 김태군(28 · NC 다이노스)이 포함, 양의지(30 · 두산 베어스)의 백업 포수로 활약하게 됐다.

50명 예비명단에만 포함됐던 이재원(31 · SK 와이번스)도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아 명단에서 제외됐고, 기술위원회는 이지영(31 · 삼성 라이온즈)을 예비명단에 올렸다. 기술위원회는 이재원을 대신해 예비명단에 오를 포수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속 구단의 허가가 필요한 메이저리거 추신수(35 · 텍사스 레인저스)와 김현수(29 ·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감독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 선수노조가 이달 안에 결정할 것 같다.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구단 결정에 무게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김현수는 본인이 출전 의지가 강하지만, 구단이 말리고 있는 모양이다. 본인의 출전 의사가 강하면 구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현수 쪽에서 구단의 의견을 듣지 않아 불이익을 얻을까봐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와 볼티모어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답신이 오지 않았다.

김 감독은 "김현수, 추신수에 대해 통보가 오는대로 다시 기술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며 "그 때 오승환, 양현종의 합류 여부도 다시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IAAF, 러시아 선수 개인 자격 대회 참가 특별 규정 마련

출전 자격 얻어도 러시아 국적으로 뛸 수 없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4일(한국시간)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 제시했다.

IAAF는 2015년 11월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전면 금지했다.

캐나다 법학 교수 리처드 맥라렌이 이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독립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육상이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도핑 의혹이 없는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반발해왔다.

IAAF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선수들을 막기 위해 특별 규정을 마련, 도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길을 열어줬다.

일단 도핑 전력이 있는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다. WADA 독립위원회는 도핑이 의심되는 러시아 선수 200여 명의 명단을 IAAF에 전달한 바 있다.

또 함께 일하는 코치와 주치의, 트레이너 등이 도핑에 연루된 적이 없어야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도핑 샘플 뿐 아니라 선수생체여권(Athlete Biological Passports)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받은 도핑 테스트 횟수와 예전에 제출한 도핑 샘플이 보관돼 있거나 재조사 중인지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러시아 선수들은 엔트리 마감 2주 전에 IAAF에 심사 요청을 해야한다. 출전 자격을 얻어도 러시아 국적으로 뛸 수는 없다.

러시아 육상은 IAAF의 결정을 반겼다.

러시아육상경기연맹의 드미트리 슬야흐틴 회장은 "50명의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서기 위해 심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다리야 클리시나는 따로 출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IAAF는 "클리시나는 지난해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럽선수권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율리아 스테파노바도 올해 별도의 요청 없이 국제대회에 나설 수 있다.

/김민근기자

지난해 8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다리야 클리시나는 따로 출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북현대축구단 인턴사원 모집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2017년을 맞아 스포츠 마케팅 및 홍보, 경기 운영, 선수단지원 등 프로 축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인턴사원을 선발한다.

이번 인턴선발은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11일 자정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3일 개별통보를 통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1월 내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근무평가우수자는 직원채용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현대 홈페이지(http://www.hyundai-motorsf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EPL 스완지, 탈꼴지 성공…기성용 2경기 연속 풀타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가 탈꼴찌에 성공했다. 기성용(28)은 부상 복귀 후 2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출장했다.

스완지시티는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6~2017시즌 EPL 20라운드에서 후반 43분에 터진 앙헬 랑헬의 결승골에 힘입어 크리스털 팰리스에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11일 선더랜드에 승리한 이후 5경기만의 승리다. 4연패 탈출이다.

이로써 스완지는 4승3무13패(승점 15)로 헐시티(승점 13)를 끌어내리고 최하위에서 19위로 올라섰다.

18위 선더랜드와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린다. 선더랜드가 -18, 스완지가 -22다.

지난 1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한 기성용은 2경기 연속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팀의 연패 탈출에 일조했다.

/김민근기자

평창서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낼 기대주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넘보고 있는 피겨 꿈나무들이 뜨거운 열전을 벌인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제7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가 6~8일 평창올림픽 결전지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평창올림픽 피겨와 쇼트트랙 종목이 열릴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쇼트트랙은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를 모두 치렀다.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싱글이 1그룹(7 · 8급), 2그룹(5 · 6급)으로 나눠 열린다. 페어와 아이스댄스 경기도 진행된다.

남자 싱글에서는 평창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떠오른 차준환(16 · 휘문중)과 한국 남자 피겨를 쌍끌이 해 온 '동갑내기 라이벌' 이준형(21 · 단국대), 김진서(21 · 한국체대)의 대결이 관심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준다. 한국은 남녀 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에서 출전권을 각 한 장씩 배분받았다.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남녀 싱글 출전권 2장씩과 페어, 아이스댄스 출전권 1장씩도 걸려 있다.

/김민근기자